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점보씨푸드 도곡점에서 '점보씨푸드 국내 론칭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범택 디딤 대표, 양 키암 멩 점보그룹 대표, 임재준 JD F&B대표. /연합뉴스

## 싱가포르 명물 '칠리크랩' 韓 입성

### 디딤-싱가포르 점보그룹

#### 강남에 '점보씨푸드' 1호점 오픈

싱가포르의 명물인 '칠리크랩'을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디딤은 싱가포르 점보그룹과 함께 '점보씨푸드' 1호점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점보씨푸드는 싱가포르의 외식 기업 점보그룹이 운영하는 브랜드로 1987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시그니처 메뉴인 칠리 크랩과 블랙페퍼크랩 요리가 특히 인기로 싱가포르 여행 시 꼭 먹어야 할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9개 도시에 1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점보씨푸드 1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재준 JD F&B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점보씨푸드는 점보의 세계 18번째 매장"이라며 "씨푸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점보씨푸드는 신선한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키암 멩 점보그룹 대표는 "점보씨푸드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지난 32년간 싱가포르 대표 씨푸드 업체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점보씨푸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받아왔다. 이번에 싱가포르 전통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점보씨푸드의 국내 진출은 마포갈매기, 연안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 기업 디딤에 의해 이뤄졌다.

양 키암 멩 대표는 "점보씨푸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디딤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디딤과 점보그룹은 지난 2월 디딤의 자회사인 TCI와 점보그룹이 지분 비율 50:50인 조인트 벤처 JD F&B를 설립해 공동사업을 펼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JD F&B는 첫 번째 사업으로 점보씨푸드 국내 론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점보씨푸드 국내 1호점을 오픈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점보씨푸드 1호점은 매장 규모가 약 992㎡(약 300평)인 대형 매장으로 매장 내부는 홀과 룸으로 구성돼 있다. 룸에서는 프라이빗한 식사가 가능하며 원형 테이블로 구성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특히 점보씨푸드 매장은 싱가포르 현지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매장 입구에는 싱가포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속의 동물 머라이언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는 싱가포르 현지 매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꾸몄다.

메뉴의 맛과 서비스에서도 싱가포르 본사에서 인력이 직접 파견 나와 국내 매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미 도곡점에 투입되는 국내 인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개월간의 트레이닝을 마쳤다.

이로 인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싱가포르 현지와 동일한 메뉴와 서비스를 국내에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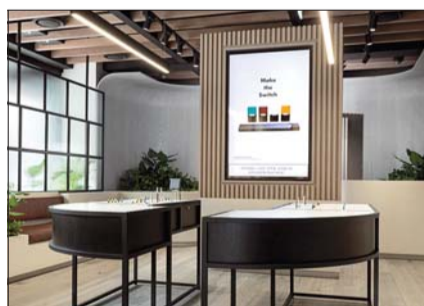
## 줄 랩스, 국내 첫 직영점 '줄 스토어' 오픈

### 세로수길서 체험·사후 서비스 등

미국 액상전자담배 브랜드 줄 랩스(JUUL Labs)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세로수길에 국내 첫 직영소매점 '줄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을 공식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줄 랩스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게 된 줄 스토어에서는 제품의 체험과 구매가 모두 가능하다. 줄 스토어에서는 줄 디바이스(살버, 슬레이트)와 5가지 종류(클래식, 딜라이트, 프레쉬, 트로 피컬, 크리스프)의 리필팩(2개입, 4개입) 및 USB 충전 도크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4개 종류(프레쉬, 클래식, 딜라이트, 트로피컬)의 팟으로 구성된 스타터팩도 만나볼 수 있다. 구매 전 경험을 원하는 성인 흡연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팟 구매 후 시연이 가능하다.

줄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에서는 줄 디바이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각인 서비스를 제



줄 스토어. /줄 랩스

공한다. 또한, 이미 줄을 구매한 고객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줄 스토어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승재 줄 랩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줄 스토어 오픈을 통해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적인 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성인 흡연자들이 단순하고 깔끔한 JUUL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토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 대웅제약-메디톡스 소송 새국면

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밝혀라" 대웅제약, 소송서 유리한 위치 선점 11월 재판 예정... "진실 밝혀질 것"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각)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반대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7



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7

ITC 명령문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현지 시각)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했다. 또 엘러간의홀 A 하이퍼(Hall-

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올해 초부터 보툴리눔 독소의 균주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월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독신 제조 기술을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할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소송은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도록 되어 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이 임하며 메디톡스에도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재판은 오는 11월 있을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과 관련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여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elie@metroseoul.co.kr

## SNS에 자살유발정보 올리면 징역·벌금형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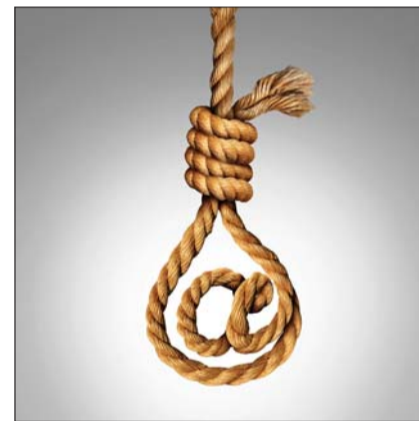
#### 오늘부터 자살예방법 개정·시행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전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동반자 모집도 2155건(12.7%)에 달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의 75.8%가 사회관계

망(SNS)을 통해 유통됐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급증했으며, 그 중 88.5%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민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10일)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 천식 치료제 '졸레어' 임상 시작

셀트리온은 알러지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인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인 'CT-P39'의 임상 1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2020년 상반기 중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해 2022년까지 3상 임상을 마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졸레어는 제넨테크가 개발한 항체 바이오의약품으로 2018년 말 아이큐비

아(IQVIA) 집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 3조 3000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셀트리온은 졸레어의 글로벌 매출 7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의 지난해 12월 물질 특허가 만료된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돌입했다. CT-P39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현재 임상 진행 중인 CT-P17(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6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5번째로 임상에 돌입하는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졸레어는 지난해 미국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됐으며,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사도 제품 혁신성을 바탕으로 적응증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이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이른 시일 내 합리적 비용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퍼스트투버 지위 획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